

# 보 도 자 료

이제는 **경제의 시간** |



|      |                     |    |   |    |   |    |   |
|------|---------------------|----|---|----|---|----|---|
| 보도일시 | 2025.5.29.(목) 배포 즉시 | 사진 | o | 자료 | x | 매수 | 2 |
|------|---------------------|----|---|----|---|----|---|

|      |                      |     |                     |
|------|----------------------|-----|---------------------|
| 담당부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br>(갯벌연구팀) | 소 장 | 김성곤 (031-8008-6500) |
|      |                      | 팀 장 | 임성률 (031-8008-8365) |
|      |                      | 담당자 | 김광배 (031-8008-8354) |

## 경기도, 화성·안산 연안에 염생식물 조성... 블루카본 생태계 복원 나서

- 백미리·선감도 갯벌에 염생식물 심어 ‘블루카본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 지채, 갯질경, 갯개미취 등 총 8종 12,000주 식재 및 3kg 파종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9일 화성시 백미리와 안산시 선감도 해안에 염생식물을 심는 ‘블루카본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염생식물은 바닷가 등의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뿌리 주변 퇴적층에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바다나 연안 생태계를 통해 흡수·저장되는 탄소를 ‘블루카본(Blue Carbon)’이라고 한다.

연구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성, 안산 2개 시 연안에 염생식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채, 갯질경, 갯개미취, 큰비쭉, 천일사초, 해홍나물, 칠면초, 통통마디 등 8종 모두 도에서 자생하는 종이다.

총 12,000주에 대한 식재와 3kg 파종은 지역 주민, 해양생물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생육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된다. 연구소는 향후 염생식물의 탄소 흡수량 측정, 해양생태계 영향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과학 기반 기후 대응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염생식물 조성은 단순한 식생 복원에 그치지 않고, 해양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블루카본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

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회복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